진안고원형 옹기장 이야기

이현배 옹기장 전북 무형문화재 제57호 지정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진안고원형 옹기장의 전북 무형문화 재 제57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특 별기회전인 '진안고원형 옹기장의 손 내사람, 옹기이야기' 전시전이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관광객 등이 참 석한 가운데 4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마려됐다.

이번 전시의 중심 주제인 진안고원 형 옹기장 은 지난 1월 전라북도 무 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돼 그 보유자 로 이헌배 옹기장이 인정받게 됐다.

진안고원형 옹기는 일반적인 남부식 장독보다 어깨가 발달하였고 장이 잘 새지 않는 고품질 옹기로 완연히 발 달한 어깨선에서 진안고원과 같이 솟 아오른 힘과 역동성이 엿보인다고 알 려졌다.

1993년 진안에 정착하여 백운면 평 장리 손내용기에서 용기를 빚고 있는 보유자 이현배 용기장은 용기 일을 마을일로 여기고, 손내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점을 지켜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방식의 옹기는 물론 현대적 쓰임새의 옹기 제작과 고대 옹관 복원까지 옹기의 다양한 변화과 정도 탐구해 나가고 있다.

이현배 옹기장은 지난해 12월 13일 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서울시립미 술관 남서울분관에서 개최된 '오늘의



진안고원형 옹기장의 전북 무형문화재 제57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기획전인 '진안고원형 옹기장의 손내시람, 옹기이야기' 전시전이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 장,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마련됐다.

용기'전시에서 선보였던 용기작품 200여점을 재구성하여 진안군민과 지 역을 찾는 관광객에서 선보일 계획이

전시된 옹기는 옹기 본래의 조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독을 비롯하여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현대적 쓰임새 무수고 있는 소형 옹기들까지 다

또한 손내사람들의 옹기 일을 보여

주는 제작 도구들과 이현배 옹기장의 기록 자료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3월 4일까지 진 안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홍삼축제 기간 중 10. 21~22일 이틀에 걸쳐 이현배 옹기장 이 대형 토기를 만드는 작업 시연과 빗살무늬토기 만들기 체험을 박물관 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원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

2017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지 난 4일 태권도원에서 열렸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 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 권도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올 해 태권도의 날 기념식은 9월 4일 오후 5시,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국민의례와 무주군 설천초등학교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유공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표창수여 및 기관별 표창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소하 국회의 원과 유승민 IOC위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태권도 기관・단체장, Ahmed El-Fouly 아프리카태권도연 맹회장 등 5대륙연맹회장, 김정 록 9단 고단자회회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대비 의암공원 정비

장수군은 22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대비, 공원내 국화꽃(1,067주)을 조성 및 진열하고, 경관등, 데크 정비와 의압호내 물 같이 및 수초들을 제거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 힐링 공간으로서 축제의 장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정비를 완료하여 축제대비에 완벽을 기할 예정이다.

의압공원은 숲체험장, 잔디광장, 녹음의숲,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의압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휴식힐링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전북도 우수축제 및 대한민국 히트 대상으로 선정된 장수군 대표 축제이자 명품 브랜드 한우랑사과랑축제'의 장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어군 아처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안군 안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 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 로마트에서 친환경포도 홍보 및 판촉행 사를 펼쳤다.

진안 안천 친환경포도 판촉행사

주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성료

제62회 진안군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

마당 행사가 지난 2일 주천생태공원에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이항

로 군수, 박명석 군의회의장, 김현철 도

의원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향우회

원과 내외면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면민의 장 ▲애향장에

안규탁(63), ▲공익징에 김경남(54), 산 업근로장에 남귀현(58)씨가 수상의 영

식후에는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주민들이 갈고닦은 8종목의

체육행사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또, 서

예교실 작품 전시, 어르신 건강체크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산물 판매장이 운

영되었고,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등 풍

성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진행으로 면민

/진안=우태만기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가운데 펼쳐졌다.

광을 안았다.

이번 행사는 진안고원 무농약 포도의 10여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천포도 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큰 목적을 뒀다.

행사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가 높아 포도 400상자가 전량 판매될 정 도로 인기가 높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교통표지판 잡목 제거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가 4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 위험구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잡목과 잡 초를 제거하고 있다.

이번 제거는 길게 자라난 잡초와 잡목들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정상적인 교통 안내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심한 표 지판 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도로담당기관 협조를 받아 신속히 시인성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신규시책 53건 · 국가예산 28건 발굴

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보고회 가져… 국가예산사업 3140억원 규모

장수군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 규시책과 2019년 국가예산 사업을 미 리 발굴하여 발 빠르게 국가예산 확 보에 나서고자 지난 4일 전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한영희 장수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대형 국책사업인 장수에서 진 안 간 국도26호선 개량사업을 포함한 2018년 신규시책 53건, 2019년 국가예 산 사업 28건 3,140억원을 발굴해 보 고가 이뤄졌으며, 검토결과와 타당성 을 분석해 향후 대응해 나간다는 계 획이다.

군은 국가예산 발굴에 대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의견을 긍정, 검토, 부정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긍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 검토필요와부정적 사업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계속적인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 건의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



장수군은 지난 4일 한영희 장수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 규시책 53건, 2019년 국가예산 28건 3,140억원을 발굴해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는 계획이다.

한영희 장수부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성장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 "국비 확보 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는 4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 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장 현장빙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 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정질문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배 성기)에서는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2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8건을 심의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남기)에서는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한다.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유근주 부군수가 제안 설명을 하며 6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또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 광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14일에는 본회 의에 부의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폐 회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